**한국학세미나:한국사회의 변화와 젠더(1)**

**(조선시대부터 식민지시기까지)**

**2016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수업**

**강의시간 : 목요일 오전 9:00 - 12:00**

**강의실 : 140동 104호**

**담당 : 문현아**

**연구실 및 전화 : 140-2동 303호. 880-4051**

**E-mail:** [**koreanseminarsnu@gmail.com**](mailto:koreanseminarsnu@gmail.com)

**강의개요 :**

**이 수업은 소위 전통시대의 한국, 특히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의 사회변화를 젠더와 일상사의 관점을 고려해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1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시기를 한 학기에 다 다루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이 수업에서는 통사적으로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대의 모든 상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나 변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을 쟁점으로 삼아 한국사회의 근대 이전 시기의 사회사적 변화를 살펴보는데 주력하게 된다.**

**젠더를 초점으로 여성과 남성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주요 사건이나 쟁점을 검토하면서 그와 연관된, 가족, 노동, 계층 등의 요인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위 전통시대 한국의 사회변화를 한 학기 동안 추적하면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역사와 사회를 접근하는데 있어 한국학의 접근을 토대로 하지만, 한국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과 방법론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한다. 특히 일반적인 정치사나 왕조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미시사적 관점을 토대로 생활사나 일상사, 젠더사나 가족사 관련 이론을 접하면서 향후 공부를 위한 이론틀을 접하는 기회도 삼는다. 한문이나 고문서 자료를 직접 살펴보긴 어렵지만, 최대한 한글화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전통시대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를 간접적이나마 접하면서 역사사료 활용법도 배운다. 그런 면에서 전통사회를 공부하자니 너무 고리타분한 느낌도 들며 어렵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생한’ 자료를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는 접근을 시도한다. 생활사 자료를 통해 전통시대를 살펴보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연구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기초한 사회적 접근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일상사나 생활의 측면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와 가족 쟁점을 접근한다. 그리고 식민지 이후 현대사회로 이어지는 맥락을 고려해서 여성의 일, 가족의 쟁점이나 자본주의적 특징도 고려해서 살펴본다.**

**강의 목표:**

**이 강의는 전통시대와 식민지 근대 한국사회를 젠더관점을 기본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젠더라는 시각을 통해 사회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통과 현대의 연계를 함께 고려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짧은 학기 동안 조선시대와 식민지 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넘어 특화된 관점과 주제를 통해 과거를 방문해서 그 의미를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강의 평가 방식:**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한 토론이 중요한 수업으로, 함께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기를 기대한다. 한국학을 공부하거나 한국사회에 관심을 갖고 유학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다른 나라 사례와의 비교 방식도 장려한다. 참여의 성실함이 결과물로 이어져 젠더를 통한 새로운 역사읽기의 기본을 다지게 되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반영해 수강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출석 및 수업 발제와 토론 참여 : 30%**

**리뷰 페이퍼 : 20%**

**중간고사 혹은 과제 : 20%**

**기말 과제 혹은 시험 : 30%**

**\* 리뷰페이퍼 : 매주 혹은 격주로 해당 주제의 교재를 읽고 그에 대한 간략 정리와 자신의 견해, 평가 등을 분석글로 제출. A4 1-2매 분량.**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혹은 과제는 추후 공지.**

**[강의일정]**

**1주(9.1) 강의 개요- 한국사회사에 대한 젠더적 접근**

**:** 한국의 전통/근대성에 대한 젠더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수업의 의미 파악 및 공유

**2주(9.8) 역사 혹은 사회학? 역사사회학에 대한 이해**

- 김동노. 2013. “거시이론에서 사건사로, 그리고 다시 거시이론으로?: 역사사회학의 연구 경향과 새로운 길의 탐색”, <사회와 역사> 통권 제 100집, 73-102쪽.

- 곽차섭. 1999. “미시사-줌렌즈로 당겨본 역사”, <역사비평> 46, 69-85쪽.

**3주(9.15) 젠더사와 가족사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 (추석)**

- 김정화. 2008.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 <역사와 세계> 34호.

- 정용숙. 2013. “’서유럽 특수성’에서 비교문화연구로: 서구의 가족사 연구”, <역사비평> 104호, 244-265쪽.

**4주(9.22) 생활사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선시대 연구**

- 우인수. 1999.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집, 825~854쪽.

- 손숙경. 2009. “사회사와 생활사의 조우”,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15권 0호, 409-4325쪽.

**5주(9.29) 여성 개인의 일상을 통해 보는 16세기 양반가족의 생활**

- 정창권. 2003. “일기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 <한국학연구> 18, 219-238쪽.

- 박미해. 2010.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부. 조선 중기의 가부장제와 가족.

- 백승종. 2008.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 문제와 성리학: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핌”, <역사학보> 제197집, 1-29쪽.

**6주(10.6) 일기를 통한 역사기록: 노상추 일기 사례를 중심으로**

- 문숙자. 2009.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너머북스, 중 1,2,3,4,5,6장(17~86쪽), 10장(125-136).

- 전경목. 2011. “서평: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문숙자 지음, 너머북스, 2009”, <정신문화연구> 34(4), 261-277쪽.

**7주(10.13) 호적을 활용한 노비가족의 가족사 따라잡기: 수봉의 가족사**

- 권내현. 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중 1장 노비로서의 삶, 2장 일부. (12-79쪽, 113-131쪽)

- 전경목. 2014. “서평: 신분상승, 어느 노비 가문에 투영된 연구자의 로망”, <역사비평> 109, 411-420쪽.

**8주(10.20) 중간 고사 혹은 과제**

**9주(10.27) 식민지 조선: 중층적 근대(성)에 대한 기본 이해**

- 채오병. 2007. “식민지 조선의 비서구 식민구조와 정체성”, <사회와 역사> 76집, 299-333쪽.

**10주(11.3) 전통과 근대 사이 가족법의 변화와 의미**

- 홍양희. 양현아. 2008.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관습조사보고서]의 호주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집, 161-195쪽.

- 이정선. 2011. “식민지 조선, 대만에서의 ‘가제도’의 정착과정: ‘호주, 가족’과 ‘호주상속’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253-283쪽.

**11주(11.10) 전통과 근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족 형성의 현실과 의미**

-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 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47-84쪽.

- 전희진, 박광형. 2016. “‘제이부인’이라는 근대적 긴장: 식민지기 결혼제도의 근대화와 여성 지위의 재규정”, <사회이론> 49, 255-285쪽.

**12주(11.17) 식민지와 제국의 경계와 젠더**

- 권숙인. 2008.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피식민 조선인과의 만남과 식민의식의 형성”, <사회와 역사>80집, 109-139쪽.

- 안태윤(2008), “식민지에 온 제국의 여성: 재조선 일본 여성 쯔다 세츠코를 통해서 본 식민주의와 젠더”, <한국여성학> 24(4).

- 김경일(2015), “지배와 연대의 사이에서: 재조일본인 지식인 미야케 시카노스케”, <사회와 역사> 105집, 287-318쪽.

**13주(11.24) 근대적 가족의 탄생과 변화**

**-** 김지혜. 2015. “근대 광고 이미지에 나타난 주부의 표상”, <미술사학보> 45, 83-106쪽.

**-** 소현숙. 2014. “여성과 빈곤: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1920-30년대 여성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권, 75-113쪽.

**14주(12.1) 자본주의적 근대 상업화와 여성의 일, 노동**

- 윤정란. 2006.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1920-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 201>, 9(2), 37-76쪽.

- 김은정. 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미용사 L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1), 64-100쪽.

**15주(12.8) 기말 과제 발표 및 토론**